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보고서

1 개요

☐ 일정 : 2024.5.16.(목)~5.23.(목), 6박 8일

☐ 방문 및 시찰 기관 : 토론토대학교 등 7개소

☐ 방문 및 시찰 목적

- 인공지능 등 서울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모색
- 미래 신전략산업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추진
-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혁신을 활용한 스타트업 활성화 사례 연구
-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및 지원정책 연구

☐ 방문 단 : 총 15명 (의원 11명, 수행공무원 4명)

○ 의원(11명)

연 번	소속 위원회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1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숙 자	여	단 장
2	기 획 경 제 위 원 회	부 위 원 장	임 춘 대	남	
3	기 획 경 제 위 원 회	부 위 원 장	왕 정 순	여	
4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위 원	김 동 욱	남	
5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위 원	김 지 향	남	
6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위 원	신 복 자	여	
7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위 원	장 태 용	남	
8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위 원	최 민 규	남	
9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위 원	홍 국 표	남	
10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위 원	김 인 제	남	
11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위 원	이 민 욱	여	

○ 수행공무원(4명)

12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임 기 4 급	이 준 석	남	
13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임 기 6 급	성 동 준	남	
14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임 기 7 급	이 성 찬	남	
15	기 획 경 제 위 원 회	행 정 6 급	정 주 원	여	

2 주 요 일 정

일 자		교통편	방문기관 및 주요내용
1일차 (인천, 토론토)	5/16(목)	대한항공 KE073 전용차량	○ 인천(ICN) 공항 탑승(09:35) ○ 토론토(YYZ) 공항 도착(09:55) ○ 기관방문① : 토론토대학교
2일차 (토론토, 몬트리올)	5/17(금)	전용차량	○ 기관방문② : 토론토 ventureLAB ○ 토론토 → 몬트리올 이동
3일차 (몬트리올)	5/18(토)	전용차량	○ 기관방문③ : 밀라 AI연구소 ○ 현장시찰① : 장딸롱마켓
4일차 (몬트리올, 워싱턴)	5/19(일)	유나이티드항공 UA3414 전용차량	○ 몬트리올(YUL) 공항 탑승(13:57) ○ 워싱턴(DCA) 공항 도착(15:58)
5일차 (워싱턴, 뉴욕)	5/20(월)	전용차량	○ 기관방문④ : 한미경제연구소 ○ 워싱턴 → 뉴욕 이동
6일차 (뉴욕)	5/21(화)	전용차량	○ 기관방문⑤ : 구글 ○ 현장시찰② : 뉴욕 첼시마켓
7일차 (뉴욕)	5/22(수)	전용차량 대한항공 KE082	○ 뉴욕(JFK) 공항 출발(13:20)
8일차 (인천)	5/23(목)	전용차량	○ 인천(ICN) 공항 도착(17:50)

3

방 문 준 비 내 용

□ 서울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전략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 서울시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해외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2024년 공무국외출장에서 추가로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기로 결정

- 일시 및 장소 : 2023. 12. 13.(수) 14:00, 여의도 IFC 서울국제금융오피스
- 참 석 자 : 서울시의원,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20여명
- 주요내용 : 서울시 미래전략과제의 탐색과 100년 도시비전 논의
 - 서울시 인구 감소 대응 방안 및 청년일자리 양적·질적 성장 필요성
 - 서울의 공간구조의 변화 및 개편 필요성
 - 서울시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 필요성 및 해외사례
 - 장기적인 미래계획과 도시 설계를 위한 마이크로 계획 구축 방법
 - 100년 후 미래전략을 위한 서울 도시비전



□ 공무국외활동 주제 및 방문기관 선정관련 회의개최

□ 1차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4. 1. 17.(수) 09:30, 기획경제위원회 간담회장
- 참 석 자 :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 주요내용 : 2024 공무국외출장 활동주제 선정
 - 주제 :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선진제도 벤치마킹



□ 2차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4. 2. 27.(화) 09:30, 기획경제위원회 간담회장
- 참 석 자 :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 주요내용 : 공무국외 활동 과제 및 시찰단 업무분장 논의
공무국외출장 국가 및 도시 확정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4. 3. 5.(화) 15:00, 기획경제위원회 간담회장
- 참 석 자 :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관련 전문가(신민철, 서울연구원 경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주요내용 : 방문국 현안 이해 및 산업, 기업, 투자 등 현황 설명
 - 한국, 캐나다/미국 간 정치·경제·문화 부문 현안
 - AI 등 캐나다, 미국 주요 산업별 동향 및 지역별 산업 여건
 - 캐나다, 미국 주요 기업 현황 및 한국의 對 캐나다, 미국 교역 현황
 - 캐나다, 미국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



4

방 문 결 과

① University of Toronto(토론토 대학교) 방문

○ 일 시 : 2024. 5. 16.(목) 13:30

○ 장 소 : **University of Toronto**

(27 King's College, Toronto, ON M5S 1A1)

○ 참 석 자 : **Chi-Guhn Lee**

(교수, Industrial Engineering)

○ 진행순서

- 토론토대학교 설명
-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방문 목적 설명과 방문단 소개
- 토론토대학의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관련 현황 소개
-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 기념품 교환 및 사진 촬영

○ 주요질문

- 토론토대학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를 선도하는 주된 요인과 관련 인력 및 시설 등 현황은?
- 국가, 주정부 또는 시 차원의 인공지능 분야 육성을 위해 토론토대학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 구글·메타·엔비디아 등 세계 유수의 기업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토론토대학 산학 협력의 특징과 중점을 두는 부분은? 서울시나 서울시립대가 관련 인재양성을 위해 집중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및 범용 인공지능(AGI) 발전에 따른 윤리기준 수립'에 대한 의견은?

○ 주요 답변 및 설명

구 분	주 요 내 용
Chi-Guhn Lee	○ 토론토대학은 캐나다 내에서는 항상 1위, 글로벌 랭킹도 20 위권을 유지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top class에 속함.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최근의 명성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꾸준한 연구를 진행하여 2010년경 딥러닝의 혁신을 이룬 것이 주요한 요인이며, 딥러닝의 아버지로 불리는 전산과의 힌튼 교수의 공로가 큼. ○ 토론토대학은 탈중앙화된(decentralized) 시스템으로 연구의 방향 및 투자가 대학별, 학과별로 이루어 짐. 대학 차원에서 인공지능연구를 독려하고 있지만, 큰 규모의 지원프로그램이 따로 있지는 않음. ○ 몇 년 전 연방정부가 시작한 5가지의 슈퍼클러스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인공지능 전용이고 다른 클러스터도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음. 다만, 클러스터프로그램은 업계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벡터연구소의 경우, 딥러닝 및 기타 인공지능을 위한 연구소인데, 주 정부의 지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구글, 메타, 엔비디아와 같은 거대 기술기업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거대 기술기업은 주로 토론토대학의 기술 역량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산학협력은 기술을 필요로 하나 보유하지 못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토론토대학 산학협력의 특징은 산학협력프로젝트에서 연구가 차지하는 부분에 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력기업에 필요한 기술 제공을 넘어 새로운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있음. ○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참고할 점은 인공지능 인재도 다른 기술 분야와 같이 응용인력과 기초연구인력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고,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발전 선도를 위해서는 두 분야 간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응용인력의 경우, 시장경제가

창출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자생적으로 성장하지만, 기초연구 인력은 정부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함.

-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윤리기준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창출되는 생산성과 이에 따른 잉여이익에 대한 공유경제 시스템 역시 윤리기준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함.
- 한국은 전자산업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관련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선진수준에 이르지 못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임. 미국의 인공지능연구가 지속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는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인공지능 방법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임. 한국은 현재까지 출시된 기술을 구현하는 방식에 머물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변화하는 상황 대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초적인 인공지능연구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시기임.

○ 방문사진



❖ 브리핑 ❖



❖ 질의응답 ❖



❖ 기념품 증정 ❖



❖ 기념촬영 ❖

2 ventureLAB(벤처랩) 방문

○ 일 시 : 2024. 5. 17.(금) 10:00

○ 장 소 : ventureLAB

(3600 Steeles Ave E, Markham, ON L3R 9Z7)

○ 참 석 자 : Avinash Persaud, Sophia Chan-Combrink 등 관계자

○ 진행순서

- Avinash Persaud 벤처랩 현황 브리핑
-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방문 목적 설명과 방문단 소개
-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 기념품 교환 및 사진 촬영

○ 주요질문

- 한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창업보육기관 설립과 지원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데 캐나다의 창업보육기관 설립과 지원 주체는?
- 일반적으로 단일 시설 내에서 모든 스타트업을 지원하기는 어려운데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스케일업 등의 스타트업 성장 단계 중 벤처랩의 중점 분야는 무엇인지? 또한 벤처랩이 하드테크에 집중하게 된 계기와 현재까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 한국에서는 정부, 지자체, 투자은행 등이 주도적으로 창업지원을 위한 자금이나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데 벤처랩의 투자유치 방법이나 접근방법은?
-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를 벤처랩에 입주시키는 기준은 무엇인가? 또한 인재 확보 지원과 관련하여 벤처랩이 활용하는 방법과 대학과의 협력 방법은?
- 향후 서울 소재 기업, 대학, 연구소와의 교류에 관심이 있는지?

○ 주요 답변 및 설명

구 분	주 요 내 용
Avinash Persaud	○ 캐나다에는 지역혁신센터(RICs)가 있으며, 지역혁신센터는 온타리오의 창업가들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시장성 있게 만들고, 인재 및 자본과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벤처랩은 이러한 온타리오주의 지역혁신 센터임. ○ 벤처랩은 AI 분야를 포함하여 스타트업 특히 하드테크 회사 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들이 제품을 만들고 상용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주로 엑셀러레이팅과 스케일업에 주력하고 있으나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과도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음. ○ 벤처랩은 14년 전 창립 당시에는 광범위한 포커스를 두고 있었으나 5년 전부터 이를 구체화하여 현재는 하드테크, 반도체 기술, AI, 메드테크(MED-TECH)에 중점을 두고 있음. 중점 분야를 구체화하게 된 것은 당시 벤처랩 CEO의 주도로 다른 인큐베이터 기관 또는 엑셀러레이터 기관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 주요 이유임. ○ 벤처랩은 연방, 주, 시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최근 하드테크(예: 반도체, AI, 의료기술, 자동차)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의 커뮤니티인 HIN(Hardtech Investor Network)을 구축하여, 벤처랩의 창업가와 다른 스타트업들을 연결해 주고 있음. 현재 65개가 넘는 국내·국외 투자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장·확장하는 단계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함. ○ 벤처랩은 캐나다 시장 진출을 하려는 국제 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인 Canada Catalyst를 통해 외국 스타트업을 초청 하고 있음. Canada Catalyst는 하드웨어 기술 및 기업용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제기업을 위해 설계된 특화 프로그램

이며, 특히 딥테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맞춤형 비즈니스 자문 서비스 활용, 유명한 캐나다 기관의 인재 확보, 경험이 풍부한 지원 네트워크 및 광범위한 시장 전문성 활용을 통해 캐나다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제 기업의 발판 역할을 하고 있음.

- 벤처랩은 대학과 협력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벤처랩 창업자들과의 협동 프로그램, 인턴십, 캡스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또한 벤처랩은 서울 소재 대학, 연구소들과 협력을 희망하고 있음.

○ 방문사진



❖ 브리핑 ❖



❖ 실험시설 방문 및 질의응답 ❖



❖ 기념품 증정 ❖



❖ 기념촬영 ❖

③ **Mila-Quebec Artificial Intelligence Institute** **(밀라 AI연구소) 방문**

○ 일 시 : 2024. 5. 18.(토) 10:00

○ 장 소 : **Mila-Quebec Artificial Intelligence Institute**

(6666 St-Urbain, #200, Montréal, QC, H2S 3H1)

○ 면 답 자 : **Robert Farias 등 관계자**

○ **진행순서**

- Robert Farias 등 참석자 소개와 밀라 AI연구소 현황 설명
-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방문 목적 설명과 방문단 소개
-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 기념품 교환 및 사진 촬영

○ **주요질문**

- 요슈아 벤지오 교수가 AI 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동기는?
- Mila연구소의 운영 비용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캐나다 정부나 퀘벡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이 있는지? 정부 및 퀘벡 주 정부의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 Mila연구소는 AI와 관련된 윤리적 우려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하는지?
- Mila연구소에서 연구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은?
- 서울 AI 허브와의 파트너십에 따른 지원 외에 한국의 스타트업이 퀘벡에 진출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 주요 답변 및 설명

구 분	주 요 내 용
Robert Farias*	○ 밀라 AI 연구소는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관으로, 밀라 연구소 창립자인 ‘조슈아 벤지오’ 교수가 AI Laboratory(소위 Montreal Institute for Learning Algorithms)로 시작함. 초기에는 몬트리올 대학교와 협력을 하였으나 이후 맥길대학교 등 퀘벡 내 다양한 대학교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으며, 각 대학교마다 연구기관이 별도로 있지만 2016년부터 캐나다의 전체적인 AI 공동 개발을 위하여 밀라 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지금까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밀라 AI 연구소는 퀘벡 주 정부와 캐나다 정부가 70%를, 나머지 30%는 밀라에서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트레이닝 서비스 그리고 밀라 소속 파트너십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음. 캐나다 정부와 퀘벡 주 정부의 지원 비율은 대략 50:50이나 학생과 기업이 퀘벡에 오는 관계로 조금 더 지원이 많은 것은 퀘벡 주 정부임. ○ 밀라 AI 연구소에는 AI for Humanity라는 팀이 있으며, 밀라 및 외부 기업들에게 AI의 윤리적 사용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조만간 밀라 내에 AI의 윤리적 사용에 대해 연구하는 소규모 연구소가 생길 예정이며, AI를 혁신적이면서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논리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 연구할 예정임. ○ 밀라에는 매년 100명에서 150명의 학생이 지원을 하고 있으며, 밀라에서 연구하는 학생은 1,300명 정도이고, 75% 이상이 해외에서 온 학생임. 이 중 1,000명 가량은 박사과정이며, 학생 선발은 교수의 지도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교수의 연구 주제와의 유사성과 학생의 연구 주제, 연구 능력을 고려하고 있음. 그리고 밀라의 학생들에게는 매년 2회 정도의 인턴십 잡 페어를 개최하여 파트너와 학생들 간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으며, 매년 300명 정도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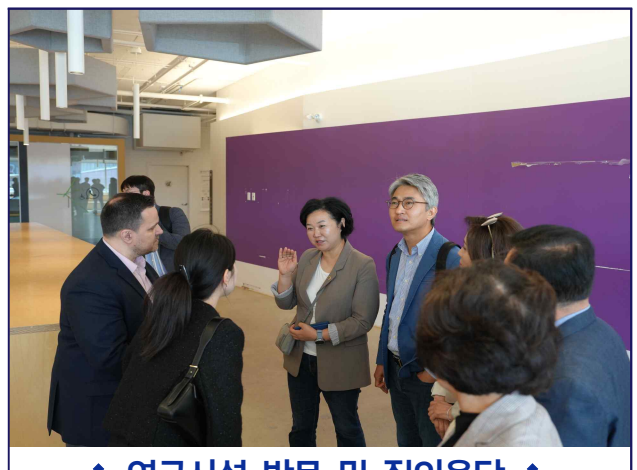
- 밀라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으나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인베스트먼트 퀘벡(Investissement Québec)'에서 관련 지원을 하고 있음.

* 당초 면담자인 Frederic Laurin 파트너십 및 개발 담당 선임 이사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Robert Farias 파트너십 담당 선임 이사가 대신 미팅에 참여함.

○ 방문사진



❖ 브리핑 ❖



❖ 연구시설 방문 및 질의응답 ❖



❖ 기념품 증정 ❖



❖ 기념촬영 ❖

4 한미경제연구소 방문

○ 일 시 : 2024. 5. 20(월) 10:00

○ 장 소 :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1800 K Street, NW Suite 300 Washington, DC 20006)

○ 참 석 자 : Troy Stangarone

(Senior Director and Fellow)

○ 진행순서

- 한미경제연구소 설명
-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방문 목적 설명과 방문단 소개
- AI 활용을 통한 제조업 분야의 성장과 기술 발전 방안 논의
-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 기념품 교환 및 사진 촬영

○ 주요질문

- 최근 KEI는 한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분야 투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하지만 한국 내 AI 발전은 노동 분야 일자리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어떻게 보시는지?
- KEI는 한미 경제 및 기술 협력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한국은 미국과 어떤 산업 분야 협력이 절실한가?
- 미국과 한국은 경제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임.
특히 서울은 한국경제의 중심도시로 기술 중심 스타트업의 육성, AI 및 BIO HUB, 국제금융지구 지정, Google과 협업 등 적극적 정책투자가 이뤄지고 있음.
어떻게 평가하는가?
- 서울-워싱턴, 서울-미국 간 경제 및 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언이나 제언이 있는지?

○ 주요 답변 및 설명

구 분	주 요 내 용
Troy Stangarone	○ 한국은 제조업을 통해 성장했으며 반도체, 자동차, 가전제품, 조선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면서 현재 한국 GDP의 약 25%가 제조업에서 창출됨. ○ 그러나 한국은 제조업을 통한 성장에 집중하면서 세계 다른 나라와 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Chat GPT 등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가시적 서비스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한국의 미래 경제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음. ○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분야 등 혁신산업에 투자하면서 제조업 비중은 GDP 대비 11%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미국은 17%,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독일도 19%에 불과함. ○ 한국도 제조업의 비중을 다소 낮추더라도 사회적 기회비용을 혁신산업 분야에 더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국제 공조나 글로벌기업과의 협업은 단기간에 빠른 성장과 노후를 축적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임. ○ AI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 노동일자리 감소 우려도 이해함. 그러나 실제로는 AI를 통한 노동 효율성의 제고,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 등은 결국 더 나은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이고 이런 현상은 스마트폰의 발전이 어떤 새로운 산업을 만들지를 예측하지 못했듯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일자리들이 대거 창출되는 기반이 될 것임. ○ 정책적 투자와 인프라의 기반 마련은 이런 현상을 가속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이미 한·미간 정보통신협력 강화 등이 이뤄지고 있음. 다만 ‘정보 댐’ 구축을 통해 방대한 빅데이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함. 인프라는 단기간에 구축이 가능하지만 정보 댐 구축은 협력과 오랜 시간 투자가 필요하므로 더 중요할 수 있음.

○ 방문사진



❖ 브리핑 ❖



❖ 질의응답 ❖



❖ 기념품 증정 ❖



❖ 기념촬영 ❖

5 구글 방문

○ 일 시 : 2024. 5. 21(화) 10:00

○ 장 소 : Google NYC

(111 8th Ave, New York, NY 10011 USA)

○ 참 석 자 : Angela Pinsky (공공정책팀장)

○ 진행순서

- Google NYC 기관 설명
-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방문 목적 설명과 방문단 소개
- 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혁신을 대비한 Google의 방안 소개
-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 기념품 교환 및 사진 촬영

○ 주요질문

- 구글은 이미 정보력에 있어 대다수 국가를 능가함. 이런 구글에게 있어 장기적 목표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무엇인가?
- 국제적 유통망을 갖추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다수 있는데, 그들과 비교했을 때 구글의 상대적인 강점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의회에서는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첨단 IT나 기술에 관한 법안을 심사해야 할 때가 있음. 구글과 같은 일류 회사라면 미래 사회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할 것 같은데, 그런 구글의 시각에서 의회에서 IT나 첨단기술에 관한 법안을 심사할 때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면 좋을지?
- 구글은 서울시와도 여러 협업체계를 갖추고 있고 세계 각 도시에서 IT 인력 양성을 비롯한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음. 관련 전문가와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협업 관계 등을 통해서 발전시켜 가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Angela Pinsky	○ 구글은 본사가 확보한 정보능력이 뛰어나다거나 타 기관보다 우수한 점을 확인하고자 별도 조사를 하거나 이런 지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지는 않음. 다만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한 서비스 개선을 꾸준히 이뤄가고 있음. ○ 유튜브나 AI 분야 새로운 서비스 등장이 어떤 미래를 만들지는 구글에서도 구체적인 상상은 어려움. 다만 누군가는 인간에게 유익한 콘텐츠와 지식을 생산하는 반면 누군가는 테러를 위한 지식으로 활용하기도 함. 개인적인 활용 방향이 다른 것을 일괄적으로 규제하긴 어려우나 (입법 방향에서) 휴머니즘에 입각한 AI 윤리를 갖추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세계 각국의 협업체계는 모두 환경이 다르며, IT 인력의 능력이나 그들이 사용하는 국가 언어도 다름. 이들을 모두 교육할 수는 없으므로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개발을 위한 툴(tool), 이런 서비스와 툴의 활용에 대한 설명 등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음. 사용자들은 이런 정보를 활용하여 더 빠르고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관련 툴을 이용해 본인과 국가, 전세계 사람들을 향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서울시가 바라는 IT 인력양성 등에도 구글클라우드를 이용하여 개개인의 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으며, 상상력과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는 인재라면 기존에 제공되는 툴을 활용하더라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성장 가능할 것임. 구글은 계속해서 구글클라우드를 업그레이드 해서 제공하는 지식과 툴을 향상시키고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구글의 파트너로서 함께 발전하게 돕고자 함.

○ 방문사진



❖ 브리핑 ❖



❖ 질의응답 ❖



❖ 기념품 증정 ❖



❖ 기념촬영 ❖

6 몬트리올 장딸롱마켓 현장 시찰

○ 일 시 : 2024. 5. 18(토) 12:30

○ 장 소 : Jean Talon Market 7070 Av. Henri-Julien, Montréal, QC H2S 3S3

- 몬트리올 전철 환승역인 Jean Talon 역 바로 근처에 위치

○ 방문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역명소화 사업
성공사례 벤치마킹

○ 시장개요

- 장딸롱마켓은 1933년 5월 지역주민들에게 신선한 현지 농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개장한 북미 최대 공공 시장임.
- 장딸롱마켓은 누벨-프랑스의 유명한 감독관이었던 장딸롱의 이름에서 유래함.
- 최초에는 “샬레(Chalet)”라고 불리는 빌딩 중심으로 개장되었고 현재까지 꾸준한 시설 현대화 및 이용 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
-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생활 밀착형 관련 물품과 남미, 유럽풍 식당가 등 이용자를 위한 이색적인 공간이 시장 내 구성되어 있음.
- 또한 지역 농부, 생산자, 유통업자를 중심으로 한 유통 체계로, 시장의 이용이 지역사회 경제에 환원되는 구조로 이뤄짐.

○ 현장시찰에 따른 소감 및 시사점

- 서울시는 2022년 전통시장을 현대건축 명소로 거듭나게 하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현재 시범사업 지역 선정과 개발계획 등의 절차에 있음. 장딸롱마켓은 이러한 서울시 전통시장 현대화 계획에 참고할 점이 많은 시장으로 보여짐.
- 전통시장은 유통업자의 차량 주차 공간과 판매 매대가 앞뒤로 연결되는 구조를 하고 있어 신속하게 매대의 설치와 물품의 재보충이 가능하고, 전통시장 내 온·냉장을 위한 설비가 없어도 상인들의 필요에 따라 개별 차량을 통해 이뤄지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 서울의 전통시장은 서민,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인식되나, 장팔롱 마켓은 남미나 유럽풍의 식당가 골목을 비롯하여 재래시장에서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느껴질 정도의 화훼코너, 다채로운 과일을 판매하는 매대 구성 등으로 볼거리, 먹거리, 쇼핑 욕구를 충족할 요소가 많아 전 연령층이 즐겁게 이용하는 모습이었음.
- 특히 시장 내부를 차와 사람이 얹혀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시장 바로 옆에 위치한 주차장, 시장 외곽에 배치된 식당가 및 차도 배치는 구조적 효율성이 높아 휠체어를 탄 노인도 혼자서 시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하였음. 이런 점들이 서울시 재래시장 현대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문사진



❖ 현장사진 ❖



❖ 현장사진 ❖



❖ 기념촬영 ❖



❖ 기념촬영 ❖

7 뉴욕 첼시마켓 현장 시찰

○ 일 시 : 2024. 5. 21(화) 11:30

○ 장 소 : 75 9th Ave, New York, NY 10011

- 뉴욕 첼시에 위치한 실내형 식료품 마켓

○ 면적 및 규모 : 약 6,500m² 규모로 약 60여개의 점포가 입점

○ 방문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역명소화 사업
성공사례 벤치마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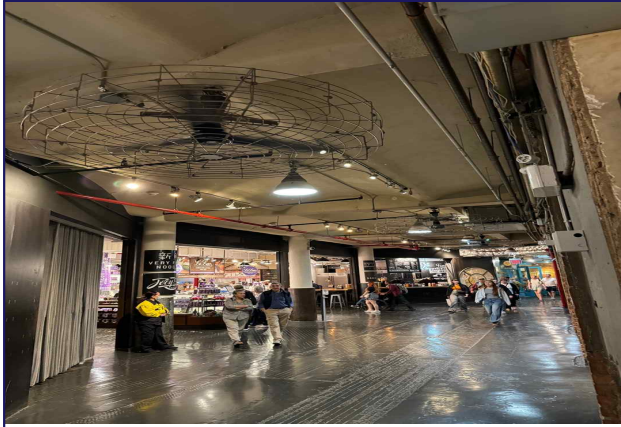
○ 시장개요

- 첼시마켓은 1997년 완공된 실내형 식료품 마켓으로 뉴욕의 보물창고라고 불리며 실내 마켓의 특성으로 인해 날씨와 상관 없이 방문이 가능함.
- 미국 역사 보존지구로도 지정되어 있는 건물에 위치한 대형 식품매장으로, '오레오'를 만들던 니비스코사의 과자 공장을 개조하여 만들어짐.
- 신선, 가공, 생활, 의류, 잡화 등 다양한 품목의 잡화점과 세계 각국의 특색이 담긴 식당들이 입점해 연간 약 600만 명이 방문하는 뉴욕 대표 명소임.

○ 현장시찰에 따른 소감 및 시사점

- 첼시마켓은 지역 소재 폐공장 건물을 시장으로 개선하여 사용하는 시설로써, 실내 환기장치, 각 점포별 물건 적재 공간 및 내부 안전 유도와 조명, 고객 편의시설 등이 충분히 '쾌적'하다고 느낄 정도로 개방감 있는 구성과 공기질 등 내부 인테리어가 정리된 모습이었음. 또한 일반 판매 점포와 식당 사이 일정 거리를 두고 있고, 중간 지대에 고객 휴게시설을 두어 공간을 구분함으로써 음식 냄새 등이 실내에 퍼지지 않았으며, 쇼핑 또는 식사 등 목적에 맞게 집중하여 활동할 수 있었음.
- 내부는 건물 사방으로 출입문을 두어 어떤 방향으로든 나갈 수 있게 되어있었고, 바로 옆에 하이라인파크와 연계될 수 있게 이동로를 갖춰 이용자가 유입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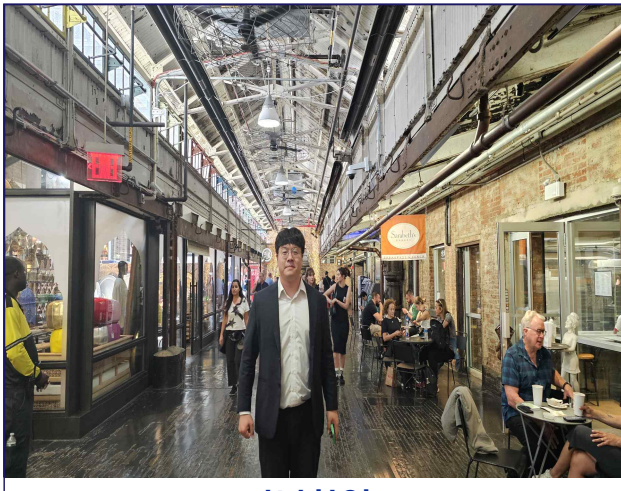
○ 방문사진



❖ 현장사진 ❖



❖ 현장사진 ❖



❖ 기념촬영 ❖



❖ 기념촬영 ❖

- ☐ **AI 등 미래 첨단 신산업 분야의 인재양성 지원 정책 방안 강구**
 - 토론토대학교, 밀라 AI 연구소의 인재양성 관련 교육 및 지원 사례 분석을 통해 AI 등 미래 첨단 신산업 분야의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방향 점검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서울시정에 적극 활용 예정
- ☐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 추진 도모**
 - AI 분야의 선도대학인 토론토대학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AI 인력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관련 협의 및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
 - 서울 AI 허브 및 Mila가 공동추진하는 글로벌 공동연구 협력 프로그램(15주 과정)의 사업 효과를 살펴, 향후 다양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으로 확대·추진 여부 검토
- ☐ **인공지능·반도체 등 딥테크 스타트업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상호 네트워크 구축 강화**
 - 하드테크, 인공지능, 메드테크 분야 등 다양한 분야 및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캐나다 벤처랩 및 코트라 토론토무역관, 구글 등 유관 기관과의 상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국내 딥테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모색
- ☐ **장달롱마켓, 첼시마켓 등 지역명소화 사례 분석을 통한 지원 정책 방안 검토**
 - 서울 전통시장과의 차별점 및 지역명소화가 된 원인분석을 통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방향 설정 및 세부 지원정책 도출 방안 검토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캐나다(토론토대학교, 벤처랩, 밀라AI연구소), 미국(한미경제연구소, 구글)
활동 목적	· 세계 최고 수준의 AI클러스터 및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서울 AI 허브 운영, 관련 정책 개발에 활용 · 한미 경제·기술 정책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 탐구
활동 기간	2024.5.16.~5.23.

활동자	성 명	이숙자 (서명)
	소 속	기획경제위원회
검 토 의 견		
○ 기획경제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진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자 인공지능 등 첨단 신산업 분야의 선도 국가인 캐나다와 미국의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시찰함. ○ AI 등 미래 첨단 신산업 분야의 인재양성 지원 정책 방안을 탐구하기 위해 캐나다의 토론토대학교와 퀘벡 주 몬트리올의 밀라 AI 연구소를 방문하였으며, 각 기관의 특징과 함께 인재양성 및 관련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첨단 신산업 분야의 핵심 인력양성과 관련한 서울시의 정책방향 점검 및 지원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확인함. ○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양성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AI 분야 선도대학인 토론토대학교와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립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진행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할 계획임. ○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서울 AI 허브와 밀라 연구소의 공동 협력 프로그램 추진 결과를 살펴, 향후 다양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이번 캐나다 방문기관인 벤처랩에서 서울의 기업, 대학 등과 협력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임을 확인하였는바, 인공지능 등 딥테크 스타트업의 국제적인 활동 및 해외 진출 지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서울경제진흥원 등 우리 위원회의 소관 기관의 유관부서에 공유할 예정임. ○ 한편, 장팔롱마켓과 첼시마켓이 지역 명소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 시설개선이 전부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매력과 특색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접목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음.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 방향 설정에 참고할 대목임. ○ 이후에도 방문기관과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서울시·서울시의회와 해당 기관 간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추진하겠음.		

활동자	성 명	임춘대 (서명)
	소 속	기획경제위원회
검 토 의 견		
○ 서울시는 작년에 밀라 AI연구소와 국내 AI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기술 개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함. ○ 이번 기관 방문은 서울 AI허브와 밀라 AI연구소 간의 연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내 AI스타트업에 대한 밀라 AI연구소의 지원 사항과 세계 최대의 딥러닝 학술연구센터인 동 연구소를 모델로 향후 서울 AI허브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 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였음. ○ 밀라 AI연구소는 30년전 “조슈아 벤지” 교수의 개인 역량과 관심, 노력으로 설립된 laboratory를 기반으로 몬트리올 대학교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퀘벡 내의 다양한 대학과 협력하고 있으며, 캐나다 정부와 퀘벡 정부로부터 운영자금의 70%가량을 지원받고 나머지 30%는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받고 있음. ○ 서울 AI허브의 경우 운영자금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서울대학교가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점에서 밀라 AI연구소의 산·관·학 연계는 매우 공고한 편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는 서울 AI허브의 미래에도 참고할 만한 부분으로 대학과 연구진에게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원천기술과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발굴하여 산업계의 지원을 유도하는 것으로 운영 방향을 정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또한 밀라 AI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업인 삼성이 밀라 AI연구소와 10년 이상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벤지오 교수를 가장 처음으로 지원해 준 기업 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음. ○ 이는 인텔이나 엔비디아와 같은 해외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도 AI 분야에 깊은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는 의미로, AI연구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능력과 관심이 높은 연구진을 발굴한다면 삼성, SK, LG 등의 국내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파트너십을 유치할 수 있는 동인이 될 것으로 보임.		

활동자	성 명	왕정순 (서명)
	소 속	기획경제위원회
점 토 의 건		
○ 우수인력의 확보와 양성이 스타트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로 손꼽히고 있고, 이를 위해 해당 스타트업의 비전과 문화, 목표에 가장 적합한 인재의 확보와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이에 구글은 각국 지방정부와 함께 스타트업 등을 육성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노하우와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성장한 스타트업과 우수 인재는 장기적으로 구글의 회원사나 시스템 이용자로 환원되는 방식으로 협력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음. ○ 그 일례로 차세대 스타트업 리더 양성을 위해 구글과 함께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 분야의 초기·예비 창업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인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스쿨 워드 서울’을 운영한 바가 있음(2024년 3월~4월). ○ 해당 프로그램은 예비·초기 창업가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신 기술 트렌드와 팀별 체험형 학습 방식으로 진행되어 크게 호평을 받았음. ○ 서울시는 AI 분야의 경우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을 위해 양재 AI 허브 등을 구축하고 카이스트, 서울대 등을 포함한 국내 우수대학 및 공군 등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음. ○ 그러나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AI 분야의 특성과 산업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협력 프로젝트를 조사·분석한 후 서울시의 상황과 교육 방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러한 인적 교류 확대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기반으로 서울시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활동자	성 명	김동욱 (서명)
	소 속	기획경제위원회
검 토 의 견		
○ 서울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AI허브 조성, AI 분야에 대한 R&D 및 펀드조성을 통한 자금지원, AI 행정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밀라 AI연구소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AI를 의료, 농업, 광업(핵심광물 채광)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움. ○ 특히 밀라 AI 연구소가 단순한 기술상용화나 상업화 수준을 뛰어 넘어 종전의 AI 자체에 대한 알고리즘, 딥러닝 등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접목을 시도하는 점이 인상적임. ○ 이는 세계 각국의 AI스타트업이나 인재가 밀라 AI 연구소에서 활동하거나 밀라 내의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학생-교수 등과 교류하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AI응용기술로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 밀라 AI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밀라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학생들과 교수들이 교류할 수 있는 연구환경과 생활환경이 마련되어 있고, 기존 기업들과 형성된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사안들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서울 AI 허브나 양재 AI 클러스터 역시 국내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해외 인재의 유입을 원활히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이 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상용화 기술 외에도 원천기술연구도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됨. ○ 한편, 국내에서는 AI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으나 AI 관련 기술과 산업이 발전할수록 우려되는 부분임. ○ 밀라 AI 연구소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AI를 어떻게 하면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 AI 허브 등에서도 이러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활동자	성 명	김지향 (서명)
	소 속	기획경제위원회
검 토 의 견		
○ 서울시는 인공지능(AI)을 접목한 행정혁신으로 시민 편의와 공무원 업무 효율 향상을 높이는 동시에 AI를 행정에 접목하여 많은 시민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4월 「서울시 인공지능(AI) 행정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전 세계적으로 AI와의 공존을 통한 사회가 보편화됨에 따라 서울시도 24시간 서울시정을 알려주는 챗봇 ‘서울톡’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 지원 프로그램’, ‘AI 기반 지능형 CCTV’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 도입·활용으로 행정서비스와 시민 편의의 질을 높이고 있음. ○ 또한 서울시는 신뢰받는 AI 행정기반 마련, AI 이용환경조성, AI 행정혁신 가속화 등 3대 전략 추진을 통해 시민 안전망 강화와 행정편의는 물론 도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AI 기반 사업을 추진 중임. ○ 정보 및 컴퓨터 과학 기업인 구글은 인프라, 제품, 서비스 활용과 함께 다양한 조직과 협업을 통해 현실 세계에 혁신을 일으키고 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한 유익하고 유용한 AI 개발을 목적으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통한 AI의 한계 극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인공지능(AI) 행정 추진계획’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구글은 검색, 지도, 번역을 비롯한 구글에서 다루는 모든 핵심 제품은 물론 개발 중인 신제품에 이르기까지 AI를 기반으로 제품의 유용성과 혁신성을 높여줄 AI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서울시가 AI 기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은 구글과 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구글은 구글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구글과 연계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개발을 위한 도구, 개발과 도구에 필요한 소스와 설명을 모두 제공하고 있고, 해당 툴을 이용해 아이디어를 서비스로 출시한 즉시 전세계를 대상으로 출시와 결제시스템 등 모든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빠른 인재양성, 노하우의 전수, 사업의 세계화 등을 유도할 요인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구글의 사업 정책과 서울시의 전문인력 양성이란 목표가 같아 협업의 시너지도 기대할만함. ○ 또한 서울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과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구글의 AI 전략을 참고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활동자	성 명	신복자 (서명)
	소 속	기획경제위원회
검 토 의 건		
- 알파고와 챗GPT의 등장으로 전세계적으로 AI에 대한 관심과 산업적 측면에서의 활용이 강조되면서 우리나라의 AI 기술수준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AI 분야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의 88.9% 수준으로 조사됨(“우리나라 및 주요국 인공지능(AI) 기술수준의 최근 변화 추이”, 봉강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4.2.28.). - 현재 토론토대학교가 AI연구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2000년대 초반까지의 AI겨울로 인해 연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던 상황에서도 꾸준히 연구를 이어 나갔던 제프리 힌튼 교수의 공로가 크다고 함. - 또한 토론토대학교는 AI 관련 전공옵션들을 다수 만들어 내고, 일반공대 보다 ‘엔지니어링 사이언스’에 대한 트레이닝을 많이 하도록 하며, 학생들이 1년 동안 공통과목들을 듣고 학사경고 없이 마치게 되면 2학년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전공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트랙원’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AI분야에 적성과 관심있는 학생에게 연구할 기회를 쉽게 제공하고 있음. ‘트랙원’은 서울시립대가 운영하고 있는 ‘자유전공학부’와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향후 시립대를 AI 및 반도체 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참고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학생들에게 ‘엔지니어링 사이언스’에 대한 트레이닝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기초연구에 대한 강조로 해석할 수 있으며, 기술상용화가 가능한 분야의 응용인력은 해당 분야의 상용화 수준에 따라 기업의 필요와 경제적 인센티브로 인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지만 기초연구인력은 정부와 서울시 차원의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유지·성장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한편 토론토대학교은 산학협력프로젝트에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서울시립대 역시 “연구”를 중심으로 산학협력을 추구할 것인지, “상용화”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 향후 주요 커리큘럼의 구성이나 운영방향을 달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활동자	성 명	장태용 (서명)
	소 속	기획경제위원회
검 토 의 견		
○ 서울시는 서울스타트업허브를 비롯한 다양한 창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 중이지만 대부분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이 위탁운영하고 있음. ○ 벤처랩은 14년 전부터 온타리오주의 창업가를 지원하는 지역혁신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방과 지방정부의 자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창업지원기관들과 구조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보임. ○ 정부나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우리나라 창업지원기관과 비교할 때, 캐나다는 민간 엑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벤처랩은 5년 전부터 하드테크, 반도체, 메디테크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가 창업지원 시설별로 주력 분야를 달리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와 유사함. ○ 이는 서울시가 공덕, 성수, 마곡, 양재 등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창업지원기관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서울시는 향후 지역별로 지정된 하드테크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당 산업에 대한 창업지원과 보육, 규모화(스케일업)에 대한 지원 수준이나 형태를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벤처랩이 하드테크 지원 중심으로 전환된 데에는 당시 CEO의 의지가 많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장의 수익창출이 어려운 하드테크 분야에 대한 민간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요인이 되었음. ○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정부모태펀드를 활용한 R&D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정부모태펀드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관(한국벤처투자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큰 강점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창업지원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활동자	성 명	최민규 (서명)
	소 속	기획경제위원회
점 토 의 견		
○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미경제연구소는 백악관과 국회에 직접적인 정책 제언을 하고 미국내 한국 정책과 외교에 관여하는 주요 싱크탱크 중 하나로, 이번 만남을 통해 한국의 GDP 대비 높은 제조업 의존도를 조정하여 AI 등 혁신산업 분야와 서비스분야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논의함. ○ 한미경제연구소 Troy Stangarone 선임연구원은 정보통신분야에서 한국이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강국이라는 독일의 경우 GDP대비 제조업 비중이 19%인 반면 한국은 25%대로 과도하게 높으며 챗GPT, AI혁신 산업분야 서비스는 전혀 출시하지 못하고 있어 미래산업에 맞춰 투자와 정책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함. ○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 AI 허브 및 BIO 허브의 구축, 구글과 아마존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확대는 후발주자로서 빠르게 데이터를 구축하고 노하우를 축적하는 한편 미래산업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평가함. ○ 다만 단순한 설비 및 집적지 구축과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등은 일시적일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댐’을 구축하여 모든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과 서비스 창출에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제조업의 투자비용을 조정할 경우 제조업 분야 일자리 감소와 AI 등의 노동력 대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데이터댐의 경우 정부가 데이터청을 통해 해외 우수 기업으로부터 구입해 축적하고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정보를 축적하는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정부가 데이터를 구입하고 축적하여 제공하는 데는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국가 간 정보격차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였음. ○ 이에 트로이 박사는 AI 등은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는 일자리의 효율과 가치 창출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단순 일자리 대체를 위한 로봇이나 AI에 투자하기보다는 노동 시스템을 혁신하는 AI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함. 또한 데이터댐의 경우 정부가 기업이 바라는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서울시는 AI 집적지 및 서울 소재 기업들과 글로벌기업의 협업을 지원한다면 기업들이 글로벌기업과의 협업 과정에서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음.		

활동자	성 명	홍국표 (서명)
	소 속	기획경제위원회
검 토 의 견		
○ 하드테크, 딥러닝, 머신러닝 등의 첨단 산업분야는 국내 인력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함. ○ 벤처랩은 해외 스타트업을 캐나다로 초청하거나 우수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이나 기업에 인재를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학과 협력하여 협동 프로그램, 인턴십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등이 참여하는 캡스톤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작년 8월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계획(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을 통해 해외 인재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서울수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유학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유학 장학금 지급 외에 국내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취·창업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우수 외국인 인재가 유학 종료 후에 국내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함. ○ 벤처랩은 “Canada Catalys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인재의 캐나다 내 연착륙과 창업비자 발급 등을 돕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정부와 서울시가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지원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및 외국인의 국내 경제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벤처랩은 국내 기업이나 대학과의 연계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서울 소재 대학이나 스타트업의 북미 진출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서울시 산하 창업지원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과의 협력 사항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음.		

활동자	성 명	김인제 (서명)
	소 속	기획경제위원회

검 토 의 견

- 서울시는 2022년부터 전통시장 명소화를 추진 중이며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을 통해 골목형 전통시장개선을 위해 1기 대상지선정과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기에 해당되는 동대문종합시장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임.
- 연간 600만 이상이 찾는 명소인 뉴욕의 첼시마켓은 폐공장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시장으로 공간을 재창출한 것으로써 실내 환기장치, 각 점포별 물건 적재공간 및 내부 안전유도와 조명, 고객 편의시설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고, 특히 높은 천장과 창문을 통한 환기방식은 폐쇄적인 실내 시장의 불편요소를 해소하는 효율적 방안으로 보였음.
- 또한 일반 판매 점포와 식당 사이 일정 거리를 두고 중간지대에 고객 휴게를 위한 벤치와 분수장치 등을 두어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음식 냄새 등이 실내 쇼핑 공간에 퍼지지 않아 쇼핑이나 식사 등 방문목적별로 적절히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이 배치되어 있음.
- 한편 건물 사방으로 출입문을 두어 어떤 방향으로든 입출입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명소인 하이라인파크와 연결되는 이동로를 갖춰 이용자가 최대한 유입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는 점은 인상적이었음.
- 서울의 재래시장은 주차의 불편함, 상인들의 상품 적재공간 부족, 좁은 길목으로 인한 화물차나 보행자 간 동선 꼬임, 재래시장 내 전기시설의 불법 설치와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 등 각종 불편성이 상존함.
- 이러한 구조로 인해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은 경제적으로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는 서민과 고령 이용자가 많은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 따라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첼시마켓이 지역 문화유산화를 통해 명소로 자리매김한 것과 같이 서울시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인근 명소와의 연계를 통한 유입확대 방안, 세계 각국의 식음료점이 입점한 식당 부스, 내부의 이색적인 인테리어를 통한 관광객 유인요소 등은 시설 현대화에 있어 단순한 시설개선이 아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접목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함.

활동자	성 명	이민옥 (서명)
	소 속	기획경제위원회
검 토 의 견		
○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확대 등으로 전통시장을 찾을 이유가 적어지고 있고, 최근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을 재개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및 접근성 개선, 명소화 등 사람이 찾는 공간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임. ○ 서울시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 혁신, ▲안심디자인, ▲음식·야간문화 활성화를 통해 서울시 관광형 전통시장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전통시장을 관광자원과 연계시켜 국내·외 관광객의 시장 유입을 통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고 있음. ○ 이러한 서울시의 전통시장 실정과 시정 방향을 감안할 때, 몬트리올 인근 300여 업체 및 농부들과 협업하여 농산물과 육류, 화훼 등을 납품·판매하고 있는 북미 최대 전통시장 장딸롱마켓 사례는 참고할 점이 다수 있음. ○ 장딸롱마켓의 경우 내부 보도와 매대가 있는 곳은 지면보다 30cm 이상 높은 평지로 구성되어 있어 주차장에 차가 들어오면 매대 바로 뒤편으로 주차하여 판매 물품 등을 즉각 배치하고 보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었음. ○ 보도와 각 매대간 거리는 성인 두 명이 양팔을 벌린 것보다 넓은 공간을 보장함으로써 인파 사이로 휠체어나 노약자가 혼자 이동하더라도 불편함이 없었음. ○ 또한 콘크리트로 된 공간만 제공될 뿐 제품에 대한 온·냉방 설비나 전기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는데 차량을 매대 가까이 배치함으로써 신선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의 경우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냉방을 하면서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등 판매자의 변경이나 매대 물품이 변경되더라도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음. ○ 한편 시장 내부가 높은 보도와 주차면이 결합된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외부는 시장 외곽을 따라 차가 다닐 수 있는 골목길 크기의 도로가 감싸고 그 골목을 따라 카페와 다국적풍의 음식점이 배치되어 다양한 볼거리와 식당이 형성되어 있었음. 이런 점이 연령대에 관계 없이 다양한 사람이 즐기는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요소로 보여 인상적이었음.		